



광기술발전을 위한 한국광기술원 개원,

광기술의 세계화 추진

21세기 광기술발전을 선도해 나갈 한국광기술원(KOPTI)이 지난 4월 12일 광주 첨단 산업단지내 남부대학교에서 개원식을 가졌다.

국가전략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광산업 육성체제의 중추기관이 될 한국광기술원의 출범은 본격적인 광기술 종합지원 기능의 구축이라는 점에서 주목 받고 있다.

개원식에는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고재유 광주시장과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 임관 한국광기술 이사장, 국내 광분야 전문가, 광관련 산업체 관계자 등 300여 명이 참석해 광산업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주었다.

개원식에 참석한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은 “21세기 첨단산업인 광산업의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반도체, 디스플레이와 같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진 제품을 만들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을 피력하면서 “산학연 관계자들의 협력과 기술개발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제품 소재개발 지원을 비롯해 시험생산공장 시설 구축 및 장비 지원, 시험·계

측·인증업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지원에 힘쓴다. 또한 광산업 관련기업에 대한 종합지원 시스템을 구축해 시설 인프라를 제공하는 등 광주지역 광산업 집적화에 견인차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무엇보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산업 육성 전략과 연계된 기업·학교·연구기관 등의 관심과 참여 분위기를 확산시켜 사업의 본격 추진체제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특히 한국광기술원은 지난해 출범한 광산업진흥회를 비롯, 올해 내에 설치될 예정인 한국전자통신연구원 광주분원, 광주과학기술원 부설 광기술연구소 등과 함께 상호보완적인 연계체제를 구축해 광산업 연구개발을 촉진시키고 경쟁력을 확보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한국광기술원은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게 된다. 1만 여평의 부지에 건축면적 1만 1천 여평으로 착공되어 2003년까지 완공될 예정이다.

이번 공사에는 광기술원 조달금 1399억원과 생산기술지원 기반확충지원금 150억원을 포함, 총



▲ 장재식 산업자원부 장관, 고재유 광주광역시장, 박광태 국회 산업자원위원장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한국광기술원 개원 테이프커팅 및 헌원식을 가졌다.

1549억원이 투입된다. 이 중 국비 1120억원, 시비 262억원, 민자 167억원이 투자되어 세계적 수준의 연구소가 건립된다.

한국광기술원의 설립 목적은 취약한 여건들을 타계해 나가면서 기업의 신부품소재 개발이나 상용시제품 개발, 기술개발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광제품 기술개발 지원 업무와 기술원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 기업 혹은 아파트형 공장입주 중소 벤처기업 등이 개발한 시제품을 시험생산 할 수 있는 시험생산 공장 시설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광제품 시험생산 및 장비지원 기능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개발생산된 광제품의 성능 및 신뢰도 평가나 정밀 계측을 지원하여 제품의 수출, 판매시 필요한 제품에 대한 인증업무를 돕는다.

기술지원 기관들간의 역할 분담 등에 대한 기획과 조정업무도 수행한다. 대학, 생산기술연구원 분원 등 기술인프라를 구성하는 지역 기술거점들간의 중복·마찰방지와 연계, 협력을 활성화 시킨다.

기술원의 기술인프라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도 힘쓴다. 광관련 기술창업 촉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를 설치하거나 공동장비를 제공하는



▲ 첨단산업단지내 남부대학에 마련된 한국광기술원 사무실

일 등 외부 전문기관들과의 네트워크 구축도 주요 사업 중 한가지.

이밖에 통신기기 시험시스템 구축사업에 일환으로 시스템 생산업체에 위탁운업을 맡기거나 기계장치산업관련 중소기업이 광산업으로 업종을 전환할 시에 필요한 생산·기술의 고도화를 꾀하고 고부가가치화를 지원한다.

앞으로 광기술의 상업화 지원과 광관련 기업의 기술발전을 적극 지원하게 될 한국광기술원. 국내 광산업의 미래를 밝히는 연구기관으로서 귀추가 주목된다.



▲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광산업이 세계경쟁력을 가질수 있도록 노력 해 줄 것을 당부했다.

‘국내 광기술의 세계화’



최상삼 / 한국광기술원장

지난 3월 한국광기술원장 공개 모집에서 전문성과 뛰어난 조직관리능력, 대외적 능력 등 종합적 분석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선임된 최상삼 원장에게 업계가 거는 기대는 크다.

“광산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제 인생의 마지막 임무로 여기고 있

습니다. 취약한 국내 광산업 성장기반 구축과 함께 핵심 기술을 개발해 우리 나라 광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역점을 두겠습니다.”

한국광기술원 초대 원장 최상삼 원장의 목표는 ‘국내 광기술의 세계화’. 광산업은 이미 21세기 최고의 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미국, 일본 등 각 나라가 총력전을 펼치는 분야이다.

“광산업은 첨단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로 국가차원의 중점육성 전략과 투자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며 “광산업의 취약한 국내 기반을 빠른 시일 내 선진국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74년 한국과학기술원 광기술연구센터 책임연구원, 94년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소 연구기획단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99년부터 한국광학회장을 맡고 있는 최원장은 프랑스 국립연구소 연구원 출신의 석학.

최원장은 97년 과기원 한택상 교수, 인천대 강준희 교수와 공동으로 21세기형 반도체로 불리는 ‘초고속 고온초전도 전자소자’를 국내 최초로 개발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

“광산업은 초기부터 생산이나 기술개발에 성공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닌 만큼 장기적인 계획아래 시설 투자 및 연구 개발이 뒤따라야 합니다.”

국내 많은 기업체가 광부품을 자체 기술로 생산하기보다는 외국에서 로열티를 지불하면서 수입하고 있는 것이 현재의 실정이다. 기업체의 창업과 개발 제품에 대한 기술적 지원을 통해 산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나서야 한다.

“20년 전부터 국내 광산업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해 왔으나 당시 기업체를 비롯, 정부에서도 광산업 육성과 투자에 대한 중요성은 인식하면서도 선뜻 투자에는 인색했던 게 사실이었다”며, “늦은 감이 있지만 국가전략산업으로 광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말한다.

한국광기술원은 오는 2003년까지 국비 1천 120억원, 시비321억원, 민자 314억원 등 모두 1천 755억원이 투입돼 광기술원 건립공사, 광제품 기술지원, 시험생산장비지원, 계측, 인증업무 등 광산업 발전을 위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한다.

오는 2003년까지 55명의 연구인력을 확보하고 시험·계측·인증 업무 등 창업보육 및 생산기술 지원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지만 벤처창업 붐과 해외인력 유출 등으로 연구원 구성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더구나 광산업은 다른 분야보다 고급인력을 필요로 하지만, 현재의 한국광기술원의 인건비는 광주시가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상황. 그러나 최원장은 “정부의 적극적인 예산지원이 이뤄지고 연구분위기만 조성된다면 인력확보는 이뤄질 수 있다”고 낙관했다.

최 원장의 계획은 의욕적으로 일을 추진하고 있는 광관련 연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성하여 워크샵과 투자설명회 등을 활발히 개최하는 것이다.

앞으로 3년 동안의 가장 큰 목표는 “국내 광산업이 세계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며 최원장은 포부를 밝혔다.

〈취재 / 윤희진 기자〉

한국광산업진흥회, 정기총회 개최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김종수 www.kapid.org)가 미국·일본 등 해외 광산업 관련 기관과 교류 협력을 추진하고 국제광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는 등 본격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지난 3월 24일 광주 무등파크호텔에서 제2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앞으로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국제 교류협력 사업과 국내외 홍보사업, 광정보망 구축 사업을 비롯한 주요 행사 등을 확정했다.

진흥회는 우선 미국·일본·대만·영국·중국·호주·러시아 등 해외 광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업무제휴를 통해 공동기술 개발과 공동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인력교류와 기술 제휴 및 이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또 오는 7월 전세계적으로 광산업의 영향력이 큰 미국 OIDA, 일본 OITDA, 대만 PIDA, 영국 SOA 등 4개국 광산업협회가 일본에서 개최하는 연차 협의회에 참가해 협의체 구성과 상호 다각적인 정보교류를 꾀하고 국제 광관련 학술회의와 전시회, 컨퍼런스 개최안에 대해 논의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연구인력 파견연수와 교류 프로그램 도입하고 우선적으로 미국에 국제교류 대외협력관을 파견해 정보수집 및 상호교류협력체계 구축을 도모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9월 11일부터 4일간 광주비엔날레 전시장 및 시립미술관 교육홍보관에서 국제광산업 전시회 및 컨퍼런스를 개최하기로 결정했다. 진흥회는 이 행사에서 국내 100여개 업체, 해외 50개 업체가 참여하는 국제광관련 제품(부품) 전시회 및 4개 분야 38개 주제로 국제광산업 컨퍼런스(IPC2001)를 열고 국내 최초로 온라인 3차원 사

이버전시장과 광산업체험 홍보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밖에 광산업 관련 정보를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광정보지원센터와 광산업 전자상거래를 구축해 광산업체 마케팅 및 경영활동을 지원해 나가기로 했으며 국내 대기업을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가는 활동을 본격화하기로 했다.



▲본격적으로 국제경쟁력 강화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히는 김종수 회장



▲지난 3월 24일 무등 파크호텔에서 개최된 제 2회 정기총회 모습